



가온 다솜

2019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VOL
30

여름

 실로암요양원
www.silwelnh.or.kr

가는 다도 2019

CONTENTS

- 03 삶의 노래
- 04 보호자 인터뷰
- 05 실로암 이야기
- 06 실로암 스케치
건강한 삶 | 활기찬 삶 | 행복한 삶 | 함께하는 삶 | 직원동정
- 13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 14 실로암 칼럼
- 15 더불어 사는 삶

실로암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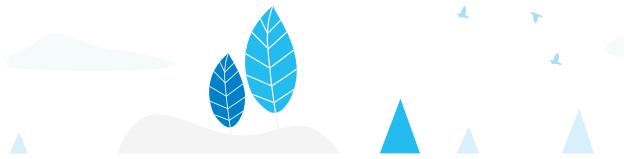
원장	박지훈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이용정원	30명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용현원	28명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29명
						직원현원	28명



발행일 2019년 7월 1일(통권30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박지훈 편집인 장혜승 발행처 실로암요양원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TEL 031. 876. 2900 FAX 031. 876. 2990 <http://www.silwelnh.or.kr>

포지-내지 디자인 이미지 Getty Images Bank

삶의 노래



거주인 이영태
72세 | 2010년 10월 입소



안녕하세요? 이영태라고 합니다.

48년 쥐띠니까, 올해로 일흔둘, 늙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젠 어디 가서 젊다는 소릴 못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8년 전 20년을 함께한 친구(사실혼 관계)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이 나이에 내가 시설을 왜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기회만 되면 퇴소를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곳에 머물게 된 게 백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온 과거를 누구에게 말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혹은 그게 뭔 자랑거리냐 할까 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제2의 삶을 허락한 곳이고 이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요양원이었기 때문에 한 많은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어릴 때 열병으로 실명을 했는데, 그나마 잔존시력이 있어서 약시로 살다가 같은 안마사였던 첫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딸 둘 낳고 잘 살았는데, 도저히 성격이 맞지도 않았고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자연히 가정생활에는 소홀하게 되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세월을 함께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또한 중도에 실명하여 전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늦게 안마를 배워 저와 같은 직장에서 안마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들을 보듬으며 함께 살았는데 사업을 한답시고 아버지가 물려준 왕십리 집을 팔아서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고 안마사로 취직하여 둘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우리 둘 다 예순을 넘기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설상가상으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입소하여 함께 살았는데 우울증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퇴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퇴소 후 2년, 이 친구의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요양원 측의 배려로 다시 입소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 친구와 저의 성격은 정반대로 누가 봐도 안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아픈 마음은 약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회복되지 않고 힘들어하여 또 다시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와 만나기로 한 날, 그것도 멀쩡하게 전화통화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부검결과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성격이 유별나긴 해도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모든 일에 경우가 바랐던 이 친구가 이렇게 훌쩍 떠나니 모두가 싫었습니다. 한동안 식사와 새벽에 생활실에서 요ガ로 운동하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 참여도 하지 않고 늘 방에만 누워서 지냈습니다. 귀도 어두워 누구랑 조곤조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떠난 자리가 제겐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주인 중에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당뇨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인 된 친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가꾸어 놓은 꽃밭이 있습니다. 그 꽃을 만져 볼 때마다 먼저 가 버린 게 야속하기도 하지만, 일흔 넘은 나이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을 보니 참운이 좋은 놈인 것 같습니다. 이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마음 추스르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약관리를 포함한 모든 건강관리 지시를 잘 따를 겁니다.

‘삶의 노래’, 진짜 삶의 노래는 지금부터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요양원에서의 삶이 즐거운 삶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 인터뷰



이강일
조영순 보호자 | 2010.7.19. 입소



안녕하세요?

조영순 어르신 둘째 아들 이강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의 어머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어머님은 자신의 삶이 없이 자식들만 위한 삶을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시면서 무릎도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패혈증으로 실명을 하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자식을 만나면 해준 거 없이 자식들이 잘 자라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들에게 늘 고맙다고 하시는데, 자식 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합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는 했어도 건강에 대한 염려만 했지만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작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0년, 80년 세월을 다른 환경에서 사시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달리 말씀은 못 드리고 거주인분들과 잘 지내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생활하던 동료가 퇴소하거나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거주인인들과 가장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시고 늘 함께 생활하는 상담지원팀장님이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두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이후에 어머님이 달라지신 모습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한 원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삶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

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오셨고, 훌륭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하고 싶은 말은 요양원의 에너지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본 요양원에서 즐겁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면 정부 및 법인에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요양원을 떠나버린다면 그만큼 거주인분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 관계를 다시 새로운 사람과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휴가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로암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섭겨주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처럼 섭겨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 또한 실로암요양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그야말로 웃음이 꽂이 활짝 피는 실로암요양원으로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 이야기



2015년 11월 입사
생활재활교사 김은희

실로암요양원에 입사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4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저에게는 한순간의 영화 필름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요양원에 첫 출근 때가 떠오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새로운 환경, 직장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였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은 처음인지라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도와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 그리고 한달.... 시간은 강물처럼 계속 흘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공존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주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는 날이 나날이 늘어나고, 시각장애인 어르신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서운했던 일, 좋아했던 일, 행복했던 일 등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00어르신과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갑자기 저의 손을 잡더니 “선생님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마음에 와닿던지 가슴 한 곳이 뭉클거렸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동안 만큼은 거주인들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겠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자 보냄을 받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갖고 세워진 기관인 만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우리 거주인들을 최고로 잘 섬기면서 모시겠습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되며,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실로암 요양원은 웃음 꽃이 활짝 피는 요양원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멋진 미소를 가진 우리 어르신들과 중증거주인들을 만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요양원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



건강산책(광릉국립수목원, 4/12)

경기도 포천시 위치한 광릉 국립수목원으로 건강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이 자연답게 살아 숨 쉬는 수목원에서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이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산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울창한 숲속으로 이루어져 산책뿐만 아니라 산림욕까지 즐김으로써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산책(퍼스트 가든, 6/20)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퍼스트 가든으로 건강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식물의 신 아도니스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제로 아도니아 축제의 기차와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티브로 구성된 정원에서, 거주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까지 챙기는 소중한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야외나들이(남이섬, 5/17)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을 방문하였습니다. <겨울연가> 촬영 명소로 알려진 메타쉐쿼이아길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신입직원의 봉사활동으로 산책 내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외나들이(양평외갓집체험마을, 6/28)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외갓집체험마을로 야외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수박 따기와 감자 캐기를 통해 외갓집 체험을 해 보았으며 어르신들은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난다면 즐거워하셨습니다. 직접 딴 수박과 감자를 맛보는 시간을 가져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찬 살30



장애인취업박람회, 4/17



장애인의 날 행사, 4/18

거주인 자립의 일환으로 제 16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주인의 자립을 위한 길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는 업체 상담과 예비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실로암요양원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진행하였으나 이날은 날씨로 인해 본관 4층 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야외에서 진행하지 못해 조금은 아쉬워하였으나 거주인들과 어울리며 맛있는 고기와 함께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4/27



보치아대회, 5/30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용산 효창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체험활동도 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9회 양주시장배 장애인 보치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소 휴대폰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한 보치아 종목의 결실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아쉽게도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주하다 행사, 6/13



치료레크레이션(월 1회)

2019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 모두놀이 마주하다 행사에 어르신들과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중증 장애인의 야외활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 회복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통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주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준비하여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복구입(분기 1회)



외식체험(월 1회)

여름을 맞이하여 2분기 피복 구입을 원하시는 거주인들과 함께 의정부 홈플러스와 LF스퀘어에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만져보고, 신중하게 옷을 고르시는 모습이 다양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마다 쇼핑백 하나씩을 들고 풍성한 마음으로 요양원 복귀하였습니다.

거주인들의 추천 메뉴로 인해 장흥에 위치한 '솔뜨락' 식당으로 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골 반찬과 백숙이 어울려 맛있고 즐거운 식사시간이었으며 푸짐한 양과 맛으로 거주인들의 미각을 사로잡는 외식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삶



어버이날 행사, 5/8

가정의 달인 5월, 가장 중요한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립장애전문 곰두리 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 원장님께서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어머님 은혜' 노래와 직접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네이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들에게 답례로 쿠키를 나누어주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맛있는 외식을 하였으며, 식사 후 옥정중앙공원으로 이동하여 산책하며 어버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생일잔치(월 1회)



이미용서비스 팩(월 1회)

매월 첫째 주 생일을 맞으신 거주인들을 위해 축하해드리는 생일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부르는 생일축하 노래와 선물 증정, 거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원들의 손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희망하시는 거주인들을 모시고 이미용서비스 팩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인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천연 팩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팩 마무리 시간에는 손, 발에 아로마 오일 마사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



2019년 상반기 가족간담회, 6/22

2019년 상반기 가족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주인 보호자들과 함께 시설 운영현황, 사업 안내, 안건 토의,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간담회를 통해 직원들과 보호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미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참여해주시는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주인 인권교육, 4/16



소방교육, 보라매안전체험관, 4/19

종종 거주인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활동지 그림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것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권리카드를 확인 후 자기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으로 재난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화재, 지진, 태풍, 교통사고 등의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관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직원동정



장애인식개선교육, 4/15



종사자 인권교육, 5/7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 ‘에티켓’, ‘장애인 고용 의무제’,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등의 주제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강희석 강사님의 ‘인권감수성 익히기’를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거주인들의 인권보장 및 향상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직원 소개(최준호 운전원)

안녕하세요. 신입직원 운전원 최준호입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거주인들과 중복장애 거주인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거주인들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사항

2008년 9월 ~ 2011년 10월 31일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 2019년 4월 실로암요양원 입사
자격현황 : 1종대형 면허, 운전기능 강사 자격증, 굴삭기 조종사 자격증



직원 수상소식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조리원 김병숙 여사님께서 한국장애인복지지시설협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주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며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며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한국전력공사 “햇살행복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선정 (1,800만원)



옥상방수공사

따뜻한 동행 2019년 공간복지 지원사업 "드림하우스" 선정 (1,300만원)



실로암 칼럼

동감(同感)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상담지원 팀장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우며, “두 손 들어!”하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원손을 겨우 듭니다. 그러자 강도는 다시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마저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겨우 원손만 조금 더 높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또 다시 “오른손마저 들어!”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 제대로 일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위협하고는 물건을 훔쳐내는 강도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도는 당장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공포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느냐, 무슨 약을 쓰느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는 서로 서먹하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입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회복지사가 약자인 거주인을 돌보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삶을 동감(同感)하는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주인 생활실시설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보호작업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활동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원고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말이 설교이지 삶을 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웃기는 얘기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우리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들처럼 몇몇 친구들은 생선의 가시도 뱉려줘야 하는, 단순 작업도 힘겨워할 정도의 지적수준입니다. 준비한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의 종교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실로암요양원 당연히 강제적인 참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미신적인 종교행위로 인하여 이들에게 강제적인 예배참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집어 치우고 노래만 부르다가 왔습니다.

우리처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서로 말은 할 수 없어도 강도와 집주인처럼 서로 동감(同感)하여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4~6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800,000	사무비
비지정후원금	10,329,050	재산조성비
기타	-	사업비
합계	11,129,050	합계
		13,840,260

4~6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지원봉사자	후원자
단체	
(사)대한안마사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LG전자, 보령메디앙스, 아워홈, 양주연화푸드마켓, 영일엠(주), 무지개호스피스,	
희망을나누는 사람들	
개인	
강승지, 강영순, 고예진, 공 육, 곽정아, 국미혜, 김경민, 김경애, 김광희, 김동진, 김무경, 김미경, 김민지, 김민혜, 김병숙, 김선태, 김애숙, 김영선, 김영준, 김윤호, 김은성,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주리, 김태웅, 김태훈, 김현도, 김현정, 김형도, 김혜옥, 김호직, 남성우, 노령지, 당화정, 도윤희, 박고심, 박대삼, 박성일, 박옥희, 박은애, 박인수, 박정훈, 박주희, 박지연, 박지훈, 백기령, 변현미, 서동균, 성지혜, 송경원, 신동선, 양민정, 엄현희, 염가연, 오창래, 오하영, 유자영, 김재인, 유춘복, 유흥진, 윤경진, 윤나라, 윤동혁, 윤성재,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길원, 이미경, 이봉희, 이상미, 이선민, 이세종, 이순희, 이슬기, 이승옥, 이연수, 이영태, 이원희, 이윤희, 이인애, 이재영, 이정원, 이지선, 이지영, 이지혜, 이진옹, 이진희, 이현규, 이해숙, 임국화, 임기돈, 임준규, 장은경, 장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성민, 정지혜, 정진아, 정해미, 조경조, 조미경, 조민지, 조영순, 조재훈, 조지연, 지정규, 최도영, 최문옥, 최수린, 최영아, 최영훈, 최은미, 최은희, 최준호, 허은주, 한미숙, 한승진, 한재근, 한재홍, 한주희, 함요한,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홍성현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구원받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치유된다.

삶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은
다른 이를 성심껏 도울 때
자신의 삶 또한 나아진다는 것이다.